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주시, 첫 마중길 조성 등 정책 펼치기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가 자동차에게 빼앗긴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각종 도로 개설 또는 기존 도로를 걷기 편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길로 만든다.

전주시는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도로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도로하천과'의 명칭을 '걷고싶은도시과'로 변경하고, 조직내부에 자전거관련 정책을 총괄할 '자전거정책과'를 신설하는 등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곳곳을 모든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으로 바꿔 가장 인간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차도의 주인은 차가 아닌 사람'이라는 가치를 토대로 △첫 마중길 조성사업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확대 운영 △보행자 중

심거리 조성 △신도시개발지구 자전거도로 신설 추진 △현 도로선형을 유지한 곡선도로 개설 등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도로보다는 사람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특히 시는 향후 개설되는 도로 설계 시 무리하게 직선도로를 내기보다는 가급적 현재의 지형상태를 유지하는 완만한 곡선도로 만드는 등 인간과 자연, 자동차가 공존하는 도로체계를 점차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자연을 파괴하고 허물면서까지 무리하게 만드는 직선도로보다는 곡선도로가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도로공사에 필요한 예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르과이 남부 라군(Laguna) 지역에는 지난해 기존의 직선형 교량이 아닌 다리를 건너는 차들이 속도를 줄여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라는 의미

로 원형다리가 건설되면서 세계적인 명소로 급부상하는 등 직선도로를 곡선도로로 바꾸려는 시도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는 차도의 폭을 줄이는 대신 인도 폭을 넓히고 도로 중앙에 광장을 만드는 전주역 앞 첫 마중길, 풍남문에서 전라감영, 풍패지관을 잇는 보행자 중심의 역사문화의 거리 등과 같이 시민들과 관광객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도로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를 원주인인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차도 위 차량출입을 전면통제하고, 차가 없는 도로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첫 실험으로 진행된 '객사 앞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시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에코시티와 호천지구, 만성지구 등 신도시개발지구 주요도로 곳곳

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늘리는 등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시의회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걷기 편한 길과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 안전하고 자유롭게 도시를 걸을 수 있는 시민들의 기본권리 보장,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등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도로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모양도 달라진다"며 "자동차보다는 걷고 싶고 자전거타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기본이다. 자동차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행복해 질 수 없다. 시민들이 도로, 하천, 공원 등 도시의 공공 공간으로부터 존중받을 때 비로소 도시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시책 추진

전주시, 온라인 지도 제작 한옥마을 수어 동영상 등

전주시가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가 되기 위해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한해 사회안전망 온라인 지도를 제작하고, 한옥마을 QR코드 문화해설판에 수어(手語) 동영상 기능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들이 더욱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해 7월 관내 장애인 거주현황과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등을 총망라한 '사회안전망 온라인 지도'를 제작,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특히 시는 이 지도에 사회복지관과 노인인시설, 노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청소년시설, 기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8대 유형별로 전주시 254개 시설별 위치와 전화번호, 행정동, 홈페이지 주소, 시설유형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도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분야별 정보의 '가족/보건/복지 사업안내'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현황을 담은 지도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해를 알리는 풍선

지난해 12월 31일 전주 풍남문 특설무대에서 열린 2016 제야축제에 송하진 도지사과 김승수 전주시장, 도내국회의원들이 카운트다운에 맞춰 소망풍선을 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청각장애인 관광객들의 한옥마을에 대한 정보접근성 향상 및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해 기존 한옥마을 문화해설판 QR코드 기능을 수어 동영상 기능을 추가 구축해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한옥마을 문화해설판 QR코드를 이

용하면, 한옥마을 문화시설에 대한 위치정보 지도서비스가 제공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QR코드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 화면을 내려받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매체에 관광 콘텐츠 정보를 전달·등록할 수 있는 기

능도 제공된다. 시는 현재 청각장애인의 위험인지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디바이스 개발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더욱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책 읽는 가족' 인증서·현판 전달

전주시에 거주하는 8가족이 활발한 독서로 도서관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한 '2016년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6년 책 읽는 가족'으로 이수로 씨 가족(송천동) 등 총 8가족을 선정, 책 읽는 가족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책 읽는 가족 선정에는 전국 각 지자체별 평균 2.3가족이 선정된 반면, 전주시는 모두 8가족이 선정되면서 책 읽는 도시, 시민들이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도서관 인프라 으뜸도시임을 재차 입증했다.

'책 읽는 가족'은 한국도서관협회와 지역 공공도서관이 가족 단위의 독서생활 증진과 도서관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가족독서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의 책 읽는 가족에는 전국 1,000여개의 공공도서관 중 426개 공공도서관, 986 가족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지역 공공도서관에 가족 모두가 회원이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경우 △가족 모두 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하며 독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도서관장님과 이용성실도, 가족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정비

전주시가 사업추진이 부진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을 정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3년 경과시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직권해제를 해야 한다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인후·진북·낙원아파트인근·동초초교북측·서원초교일원 등 5개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정비구역 해제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주택재개발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구역에 대한 해제 필요성과 법령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심슬럼화 방지를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을 알렸다. /김영재 기자

전북청,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사회 정착 간담회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5층 대회의실에서 조희현 청장과 보안협력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경찰청 보안협력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불우 북한이탈주민 위문금 전달, 정착지원 우수 사례 발표 및 공우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희현 경찰청장은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을 위해 보안협력위원회의 자발적인 봉사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보안협력위원회는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민·경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지적장애인 성폭행 노인 징역형

지적장애인을 성폭행 하고 추행까지 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74, 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과 신상정보 3년 공개를 명했다. /김민근 기자

김씨는 2014년 10월 말 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27, 여)를 전주시 완산구 서원산동 소재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2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국립승주사 박물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